틀에서 벗어나라

도심포교 선두주자 심산 스님의 신선한 경험담

한국불교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 그 중에서도 홍법사는 도심포교가 활성화된 사찰로 잘 알려졌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불자까지 각 연령별 포교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홍법사에서는 태어나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시기의 포교방법으로 영유아수기법회, 동자승 출가제도, 마을상좌 수계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법회와 함께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 등도 개최해 불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수필집 <처음 마음 그대로>는 이처럼 불교 포교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가고 있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의 포교 열정을 담고 있다.

'아직은 이른 봄' '새싹들의 나들이' '뿌리 깊은 나무를 꿈꾸며' '결실, 그리고 또 다른 시작'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된 이 책은 스님이 포교현장에서 직접 느낀 체험을 모았다.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과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소장,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등 어린이 포교 전문단체의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포교에 나서는 다른 불교지도자들에게 조언한다.

"매년 고3 수험생을 위한 법회 시간, 법문이 끝나면 발원문을 쓰는 시간을 갖는데 수능 100일 전 법회에 집으로 발송해 처음의 각오를 다시 일깨운다. 이 법회는 부처님과 전혀 인연이 없던 아이들에게 자연스레 포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영어 템플스테이는 불교 포교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다. 이웃종교에서는 아예 외국인을 채용해 신도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아이들은 불교의 108배 등을 싫어하면서도 피부색이 다른 원어민 선생님과의 흥미있는 시간들을 생각해 불교의식의 힘든 과정을 감수하고자 한다."

동글동글 머리를 깎아 더 예쁜 동자승들의 21일 단기출가 이야기, 심산 스님의 고향과 어린 시절 추억, 포교뿐만이 아닌 평소 수행 중에 깨달은 점 등 책 속의 글귀도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스님은 책에서 "푸른 잔디밭을 뛰노는 천진불들 앞에 새삼 나의 출가를 돌아본다. 그때는 오로지 스님다운 스님이 되리라는 불퇴전의 신심뿐이었다"고 회상하며 "발심이 끝없이 나를 향상시키는 계기임을 아는 지금 재발심의 기회가 왔음을 알았다"고 말한다.

"신행 매뉴얼이 필요하다" "출가스님들이 참 수행자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등 책 속 스님의 목소리에서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처음 마음 그대로 | 심산 스님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3000원

노덕현 기자

심산 스님 인터뷰

"'어린이 포교의 날' 등 중흥책 필요해"

<현대불교 자료사진>

"어린이 포교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는 시기조차 지나버렸습니다. 불교계의 누구나 그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입니다."

포교현장에서의 경험을 담은 수필집 <처음 마음 그대로>를 펴낸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사진)은 7월 6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불교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이기에 이번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책 제목 <처음 마음 그대로> 처럼, 심산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 재학 시절 어린이법회 법사로 어린이 불자들과 인연을 맺은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오고 있다.

스님은 홍법사 불사를 시작하기 전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을 얘기하며 각 사찰 주지스님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스님은 "당시 절이 없어 불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포교에 뜻이 있으니 오히려 어린이 불자들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며 "스님들은 사찰에 어린이 불자들이 적어서 어린이 법회 등을 열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적던 많던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단 차원에서 어린이 포교를 위한 날을 정해 새로운 신행의 붐을 일으켜야 합니다."

스님은 이날 어린이 포교에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종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예로 현재 홍법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수기법회' '동자승 단기출가학교' '마을상좌' 프로그램 등의 전국사찰 일제 시행을 들었다.

스님은 "영유아 수기법회는 가톨릭 세례처럼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하는 것으로 자라면서부터 '나는 불자'라는 의식을 심을 수 있다. 또 마을상좌 프로그램은 5~6명 수준으로 가족과 함께 동참해 은사 스님에게 수계를 받기 때문에 100~200명 씩 대규모로 진행되는 기존 수계식에 비해 불교에 대한 애종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각 교구본사에서 동자승 단기출가를 수행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진행한다면 많은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포교의 날이 마련돼 전국 사찰의 대웅전에서 일제히 종이 울리는 가운데 가족과 함께 아이들이 불자로 거듭나는 그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문화 소식통

남성미 넘치는 한영숙류 승무

8월 15일까지 대학로 성균소극장서 선보여

'승무'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리감을 떨쳐버리는 신명나는 춤판이 벌어진다.

한국춤예술원(대표 이철진)은 8월 15일까지 서울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100일간의 승무 이야기'를 선보인다.

평일 오후 8시, 주말과 공휴일 오후 4시에 개최되는 '100일간의 승무이야기'는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자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된다.

우선 소극장이라는 공간의 변화가 눈길을 끈다. 기존 불교무용 공연이 연 1~2회 개최의 한계로 인해 많은 관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공연장을 무대로 선택하는데 비해 보다 작은 무대를 선택해 무용수가 뿜어내는 절제된 힘, 손끝에서 느낄 수 있는 춤동작의 흐름 등을 관객들이 느끼게 하고자 했다.

또 승무뿐만이 아닌 태평무 등 굿장단과 어우러진 전통춤도 함께 선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느리고 절제된 발놀음 가운데 기운찬 장삼놀음이 펼쳐지는 '승무'와 빠른 발놀음이 백미인 '태평무'의 조화는 독특하다.

일반인이 승무하면 떠올리는 여성적인 호남 이매방류의 승무가 아닌 남성적인 한영숙류의 승무가 펼쳐지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철진 한국춤예술원 대표는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승무 공연, 그리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춤판으로 관객들이 우리 춤의 재미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2)747-5035

노덕현 기자

이철진 한국춤예술원 대표의 한영숙류 승무.

禪, 추상과 만나다

법관 스님 作, '선으로부터'. 석채와 안료를 섞어 사용해 원색의 균형과 조화를 표현했다.

추상으로 구현된 선(禪)의 세계를 만나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선화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법관 스님은 7월 31일까지 부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 아트갤러리에서 특별 초대전을 연다. '선(禪)으로부터'를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회는 난색과 한색의 보색대비로 이뤄진 추상화들이 전시된다. (051)747-0372

노덕현 기자

(주)현대에너텍 2010년 최신형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융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물로 청소 할 수 있는 제품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평상 100대 한정판매
大 1800×1030×400mm 가격 250,000 → 할인가 190,000원
中 1500×82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원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설치가 간단한 평상
· 폴리프로필렌자재 기 둥 : 110×90×350mm 도 리 : 80×35mm
중간대 : 80×35mm 마루판 : 210×12

■ 벤치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판 (폴리프로필렌)
· 규격 1500×38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 (063)323-3011~2
FAX : (063)323-3010
계좌번호 : (농협) 462-12-314256 예금주 : 지구산업 곽영호
전 국 대 리 점 모 집

<금강경 주석서의 진화>
금강경 회상순해
이 책에는 眞理와 科學과 敎와 禪이 함께 있다.
근원을 넘나드는 거침없는 해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 한다.
〈구입문의〉
유명서점·불교서점
총판 :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저자 고목 | 신국판 478쪽 | ₩17,000
도서출판밀양 T.055-355-9122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정맥선원 여름수련회
77조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78대 대원 전법선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법도량, 국제 정맥선원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명안종사인 대원 선사님이 하택 신회대사의 현종기를 수련회 기간 동안 법문하십니다. 현종기는 육조대사의 법의 골수를 담은 글로서 그 법을 직접 이어받은 78대 대원 선사님의 육성으로 이 법문을 듣는다면 깨달아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낙을 누릴 정법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양 나래를 편 대선지식의 회상에서 정법의 진수를 누리십시오.
국제 정맥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 시 : 8월 12일(목) 오후 2시 ~ 8월 15일(일) 오후 2시
회 비 : 1인 8만원 / 가족할인 6만원
전 화 : 031-531-8805 / 010-8980-9442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 참가자 전원에게 '현종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 수련회 당일은 광릉내 707번 종점에 오셔서 전화하십시오.